

주현절 후 네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1년 1월 3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83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 53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 번 시편(Psalm) 1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John) 4:19-24	김 현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2) – 영과 진리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In Spirit & In Truth)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는 용서와, 행함 없는 믿음과, 그릇된 신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일깨워 주셔서,

이제부터는 신실하게 주의 길로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 2:12, 시 25: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한글개역 요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NIV John 4:2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31 (주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창32	창33	창34	창35,36	창37	창38	창39
본문	막3	막4	막5	막6	막7	막8	막9
	에8	에9,10	욥1	욥2	욥3	욥4	욥5
	롬3	롬4	롬5	롬6	롬7	롬8	롬9

수/요/ 성/경/공/부 선/교/ 교/육/ 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2/3 오후7:30)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롬6:11-15)
선교/교육 기도회 (2/6 오전6:30)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눅9:18-25)

지난 주일(1/24)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1) – 선한 능력으로” (눅 18:18-27)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왔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계명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발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눅18:22-2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큰 부자 였다고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여기에 성경해석을 더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구원)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신이 가진) 물질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능력이란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자기부인, 겸김, 낮아짐, 희생, 환대, 공감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능력인 것이며, 이러한 선한 능력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선한 능력이 더해져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